



##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신으로 일로매진”

조석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 미국 미주리주립대 석사/경제학
- 경희대 박사/경제학
- 제25회 행정고시
- 통상산업부 공보과장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장, 에너지정책기획관
-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지식경제부 제2차관 역임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2013~)

국내의 한수원 가족 여러분!

글로벌 한수원의 큰 도전을 이어갈 새해 아침입니다.

건강과 성공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원숭이의 해, 2016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회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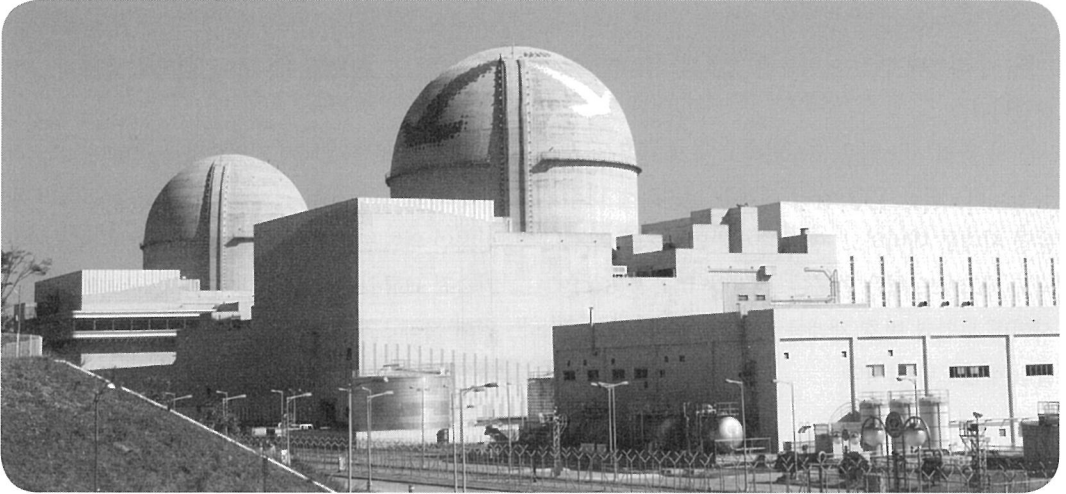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 경영 정상화와 더불어 글로벌 위상을 높인 해였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과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발효되는 등 국내 원전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상의 운영 실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룩하였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등 주요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WANO 회장사(社)로 취임하면서 글로벌 위상을 높였고, 국민, 그리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직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민의 신뢰로 국민과 소통하며 상생하는 기업으로

사랑하는 한수원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대내적으로는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기술력을 높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고리 3,4호기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국내 경기 침체의 우려는 높아지고, 원전 사업 추진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높아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를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저앉거나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파리협정으로 온실가스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원인 수력, 양수,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WANO 회장사(社)로서 글로벌 원전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과 각오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 정직한 사람들이 모인 믿을만한 기업,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지난 2년 우리는 당면한 여러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거문고 끈을 고쳐매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정성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더하여 국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올해의 경영 화두를 ‘여민동락(與民同樂)’이라고 하였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일상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회사로 국민의 사랑 없는 회사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기쁨이 국민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국민의 마음속에 언제나 같이 하는 회사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모아 2016년을 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한 해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안전 최우선 경영

첫째, 안전 최우선 경영입니다.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전제



가 됩니다. 우리에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원전 안전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규제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원전 운영 관리 체계를 선진화해 다수 호기 운영 시대를 대비하고,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와 설비 신뢰도 제고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철통같은 원전 사이버 보안과 방호 체계를 확립해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합니다.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둘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신규 원전과 UAE 원전의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신고리 3,4호기가 하루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고, 천지 원전 건설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원전 해체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원자력 전 주기를 완성하여 세계 원전 시장의 주역이 됩시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160여 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UAE 원전처럼 EPC 위주의 플랜트 사업뿐 아니라 부품, 용역 수출 등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개척해 회사의 성장기반을 넓히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겠습니다.

UAE 원전 1호기 시운전 역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나아가 준공 후 운영 지원 사업(OSSA)도 성공적으로 체결하는 한편, 베트남, 페루, 네팔 등 수력발전의 해외 진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원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셋째,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세계 원자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해외 원전 운영국 간의 기술적 교류와 소통을 활발히 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적극 노력하다 보면 원자력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단 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닌 만큼 지금부터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술 조직화'로 조직 간의 교류도 더욱 활발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다고 해도 인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과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가 해외 굴지의 에너지 기업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우수한 인재가 되고, 우리 회사가 국가 에너지 미래를 이끌고 나갈 우수한 인재들의 요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원전 시대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원전 시대입니다.

지역 주민,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 없이 원전산업은 조금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려면 지역 주민, 그리고 국민과의 상호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인이다'라는 자세로 대화하고 소통해야 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원자력계를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한수원형 공급망 관리(SCM)로 원전 부품 공급망을 공정하게 관리해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열린 조직 문화

마지막으로, 열린 조직 문화입니다.

존중과 배려의 문화로 일할 맛 나는 활기찬 일터를 여러분과 더불어 만들고자 합니다. 본부 간, 처실 간, 부서 간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열린 마음과 자세로 소통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때 회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노사문화도 정착해야 합니다. 노와 사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노와 사가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야만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 공복(公僕) 의식과 주인 의식

사랑하는 한수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라는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숭고한 임무를 부여 받은 만큼 철저한 공복(公僕) 의식과, ‘내가 한수원이다’라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달라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적시에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처럼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들여도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Team KHNP’ 정신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팀워크로 결집된 조직은 어떠한 어

려움 앞에서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수원이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비록 흐린 날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거대한 대양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 2016년은 경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뜻 깊은 해

여러분.

올해는 경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뜻 깊은 해입니다. 터가 좋으면 경사가 이어지듯 우리 회사도 다함께 기쁨을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경주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로서 시내 전체가 UNESCO 문화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유서 깊은 지역이며, 월성원자력본부, 중저준위방폐장 등 원자력 관리 시설이 집중된 도시로서 원자력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 경주가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회사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한 터전이 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경주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즐거운 마음으로 잘 적응하기를 바라며, 특히 경주시민과 하나의 공동체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김구 선생은 ‘내가 걷는 이 길을 따라올 다른 사람들을 위해 눈 덮인 길을 걸을 때 똑바로 걷는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으며 흐트러지지 않고 소신껏 걸어가는 발자취는 그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우리 모두 ‘새 시대 에너지의 주역이다’는 각오로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서 흘렸던 구슬땀과 헌신, 그리고 열정이 우리가 꿈꾸었던 미래, 그 이상의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